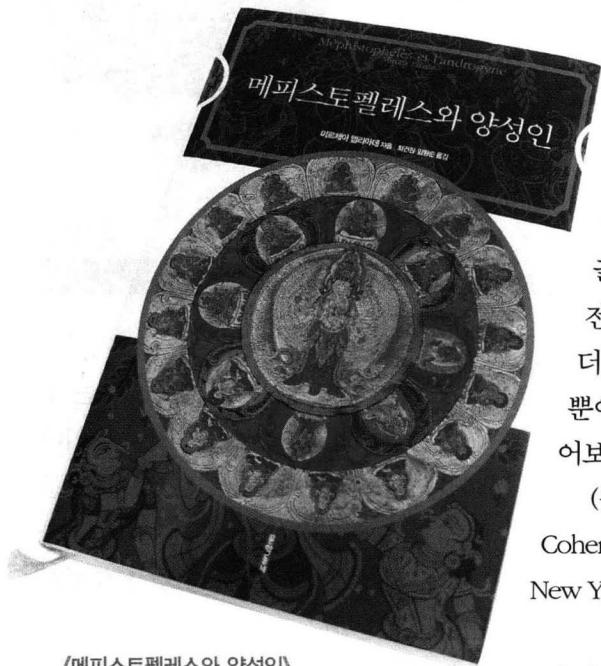


#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

‘고전번역’ 전공자 노력 · 사회적 지원 절실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  
미르체아 엘리아데 지음 |  
최건원 · 임왕준 옮김 | 문학동네 |  
303쪽 | 값 18,000원

신화와 종교를 다루는 학자들 중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아마도 엘리아데와 조셉 캠벨일 것이다. 둘의 책을 비교해 보면 꽤 비슷한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그래도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서 캠벨은 신화학에 치중하면서 비교적 대중적인 글을 쓰는 반면, 엘리아데는 그보다는 더 학문적으로 종교적 현상 전반을 다룬다고 하겠다.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엘리아데의 글이 좀 더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책이 꾸준히 나와 주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오늘은 그 고맙고 훌륭한 번역에서 몇 가지 자잘한 문제를 짚어보자.

(원문 대조에는, 자주 그렇듯이 불어판 원문을 구하지 못하여, J. M. Cohen이란 이가 번역한 영어판, Mircea Eliade, The Two and the One, New York and Evanston 1965를 이용하였다.)

다섯 개의 독립적인 글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첫 부분은 종교수행자들이 겪는 신비로운 빛의 체험을 다룬다. 그런 사례의 하나로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를 불과 빛에 연관시키던 전통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신약성서의 한 부분 제목이 잘못되었다. “《히브리 성서》(70쪽). 이는 원래 ‘히브리 인들에게 보내는 편지(the Epistle to the Hebrews, p.57)’, 즉 《히브리서》가 될 것이다. 오늘날 보통 ‘성서’라고 부르는 경전은 유대인(히브리 인)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니, ‘히브리’ 성서라는 말은 군더더기 표현이기도 하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완전한 존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닌다는 믿음을 다룬다. 그 사례로 희랍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불어권 책 번역자들의 ‘고유한’ 어려움이라 할, 고유명사 문제가 불거진다. 우선, 좀 작은 것이다. 둘 다 중성적인 존재인 카오스와 에레보스가 결합하여, 양성인 밤(뉘스)이 생겨난다는 대목인데, ‘에레보스’ 대신 ‘에레베’(139쪽)로 적혔다. 별 것은 아니지만 희랍어에서 ‘-에’는 여성형 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에레보스가 중성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는다.

같은 쪽의 다른 이름은 더 많이 나갔다. 헤라가 “홀로 헤파이스토스와 티페를 낳았”(139쪽)다는 것이다. 여기서 “티페”는 원체, ‘튀폰’ 또는 ‘튀포에우스(Typhoeus, p.109)’가 될 것이다. 제우스의 패권 유지에 큰 위협이 되었던 이 존재는,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가이아가 타르타로스와 결합하여 낳았다는데, 달리 헤라가 혼자서 낳았다는 판본도 있고, 이 책은 후자를 따랐다.

양성(兩性)인에게서 보이는 ‘반대들의 결합’은 메시아 재림 이후의 세계 상태이기도 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외성서(베드로서, 빌립보서, 토마의 복음서 등)에서는 …



글\_ 강대진 서양고전학자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메시아의 도래가 실현한 우주적 변혁을 묘사할 때 그런 모순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한다.”(157쪽) 하지만 “베드로서, 빌립보서”는 외경(外經)이 아니라, ‘정경’에 속한다. 원래 여기 들어갈 것은 ‘베드로행전, 빌립행전(the Acts of Peter, the Acts of Philip, p.121)’이다. 정경에 들어가 있는 〈사도행전〉처럼, 이런 ‘행전(行典)’ 들도 있었다.

우주가 주기적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믿음을 주로 다룬 세 번째 부분을 지나, 넷째 부분에서는 기이한 하늘 밧줄 이야기들을 다룬다. 그런 밧줄 중 하나가 〈일리아스〉 8권에 등장한다. “제우스는 모든 신들을 올림포스에 불러 모은 뒤 트로이인이나 다나에인을 돕지 말라고 경고”(241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나에”는 황금의 비를 맞고 페르세우스를 낳았다는 아르코스 왕녀이니 여기 나올 이유가 없다. 여기 필요한 것은 ‘다나오스 인들’이다. (〈일리아스〉에는 아직 전체 희랍을 가리키는 용어가 없어서, 희랍군대를 가리킬 때 ‘다나오스 인들’, ‘아카이아 인들’, 또는 ‘아르코스 인들’이란 말을 쓴다.) 다나오스는 희랍인들의 조상 중 하나인데, 다나에와는 다른 인물이고 성별도 다르니, 남성과 여성의 합일을 높이는 책에서라도, 둘을 구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제우스는, 위의 경고에 이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후환이 있으리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하늘에 황금 줄을 걸어놓고, 그대 신들과 여신들 모두가 한꺼번에 매달려보라. 그대들은 결국 이 제우스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내가 원한다면, 나는 저 땅과 바다를 그대들에게 끌어당길 수도 있다.”(241~2쪽)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좀 이상하다. 지금 문맥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밧줄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제우스는 하늘에서, 다른 신들은 땅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이니, ‘나는 저 땅과 바다를 그대들과 함께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식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희랍어 원문(8권 24행)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문판을 보아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온다(But if I cared to pull hard from my end, I should haul you up, earth, sea and all, p.179).

한편 플라톤에도 비슷하게 황금 사슬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소크라테스가 테아이테토스라는 이에게 이렇게 묻는다. “호메로스가 저 유명한 황금 사슬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오직 태양뿐이었고, 그러기에 천구가 움직이고 있는 한 신에게서나 인간들에게서나 모든 것이 태양을 품고, 태양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을 결국 너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보여야 한단 말이나? 그러나 만약 저들이 … 꿈쩍도 못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 이제 남은 것은 우주가 뒤

집히는 것뿐이다.”(244쪽) 첫 문장은 끝부분이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대체로, ‘호메로스는 모든 것이 태양을 품고 있다고 주장한 셈인데, 그건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정도로 풀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읽어줘도 뒷문장과 연결이 잘 안된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 앞 문장에 ‘(무엇인가) 잘 돌아가면 우주 역시 제대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와야 할 듯하다. 〈테아이테토스〉의 해당 구절(153d)을 찾아 보면, ‘태양과 하늘이 그 궤도를 도는 한, 인간적이고 신적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영어판도 같은 내용이다(so long as the sun and the heavens go round in their orbits, all things human and divine are and are preserved, p. 181).

황금 사슬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책은 제목이 이상하게 옮겨졌다. “《전갈의 꿈에 대한 해설Commentaire sur le Songe de Scipion》”(245쪽). 하지만 곁에 쓰인 로마자 이름은 ‘〈스키피오의 꿈〉에 대한 주석’이라고 되어 있다. 역자께서 순간적으로 철자를 잘못 읽은 모양이다. 이 〈스키피오의 꿈〉은 키케로가 쓴 《국가론》의 전체 여섯 권 중 제 6권의 일부로서, 3차 포에니 전쟁의 주역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가,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과 싸웠던 자기 할아버지 스키피오를 꿈에 보고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다.

사실 필자는 이 책(번역판)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저자가 고전의 어떤 구절을 인용한다면 항상 이용하는 정평 있는 번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가령 불어판의 원저자는 늘, 흔히 뷔데(Bude)판이라고 불리는 판본을 이용하고, 영어판의 역자 역시, 플라톤을 인용할 때는 Jowett역 하는 식으로 자기네 ‘정본’을 이용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플라톤 전집조차도 나오지 않았으니, 역자들이 혼자서 고생을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고 마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외국에 유학한 후배가 자기네는 칸트의 3대 비판서를 한 학기에 다 읽었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우리도 대학 때 《순수이성비판》을 읽었지만, 독일어 원문으로 보느라, 한 학기 내내 읽어서도 채 15쪽을 지나지 못했었다. 원문으로 자세히 읽는 방식도, 번역으로 빨리 많이 읽는 방식도 다 필요한데, 우리에게 지금 후자를 취할 길이 막혀있다. 충실한 고전 번역들이 없어서다. 모든 지적 활동의 바탕이라 할 고전적 저술들의 번역에, 전공자들의 우선적인 노력이, 사회의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